



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민영건강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민영의료보험의 최소손해율 제도가 인용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 도입과 함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과는 성격상 많은 차이가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임.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책임보험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보다도 공보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은 양국 민영의료보험 간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리한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됨.

■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 논란과 관련하여 미국 민영의료보험 사례가 인용됨에 따라 양자 간의 특성을 정확히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가능성¹⁾과 미국 민영의료보험 최소손해율 제도²⁾에 근거하여 민영건강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됨.
 - 2013~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로의 단계적 편입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됨.
- 특히, 민영의료보험 중심인 미국에서 보험회사의 수익 제한을 위해 최소손해율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이후 공공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표 1) 참조).

1) 정성희(2016. 4. 11),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보험회사는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가?」, 『KiRi Weekly』, 제379호.

2) MLR(Minimum Medical Loss Ratio) rule: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 대상으로 판매된 건강보험상품의 손해율이 80%(단체는 8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분 만큼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줘야 함.

-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시장 자율적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에서 개혁 이후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과는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움.
 -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전 국민 의무 가입, 인수거절 금지, 제3자 지급제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보다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짐.
 - 미국 민영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차등 불가³⁾, 인수거절 금지 등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보다도 공보험적인 특성이 강함.

〈표 1〉 미국 민영의료보험의 공보험적 특성

구분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미국 민영의료보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위험인수자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공공보험기관
가입자율성	임의 가입	의무 가입	의무 가입 *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의무 가입
보험료	개인위험요율	개인위험요율	지역요율	소득비례율
인수거절 (언더라이팅)	가능	가능 * 저절물건 공동인수제	불가능	불가능
지급체계	상환제	제3자 지급	제3자 지급	제3자 지급
공보험적 성격	약  강			

■ 미국의 최소손해율 제도는 추가 이익의 사회 환원과 더불어 적정 이윤 보장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사회 환원에만 주목한 해외사례 인용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함.

- 미국 최소손해율 제도는 보험료 차등 불가, 인수거절 금지, 더 나아가 전 국민 가입 의무화라는 특성에 근거한 것으로, 시장 자율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최소손해율 제도 도입 주장은 양국 민영의료보험 간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무리한 논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kiri](#)

3) 뉴욕, 뉴저지 등 대부분의 주에서 개인 민영의료보험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 개인에 대해 동일한 지역 요율(communitry rate)을 적용하고 있음.